



"우박 맞은 잣더미 같고 활량의 사포 같다"

뜻: 얼굴에 천연두 자국처럼 흉터가 많아 울퉁불퉁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놀릴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얼굴 · 흉터 · 놀림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우	박	↘	맞	은	↘	잣	더	미	↘	같	고
활	량	의	↘	사	포	↘	같	다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우	박	↘	맞	은	↘	잣	더	미	↘	같	고
활	량	의	↘	사	포	↘	같	다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오버] [모오] [자도모] [ㄱㄱ] [흥려오] [사표] [ㄱ드]

웹에서 보기

